

News

5대은행 가계대출 2개월 연속 감소…예·적금 12조원 증가

조선비즈

5대 시중은행 가계대출, 24일 기준 총 706조 956억원 집계… 1월대비 1조 5,939억원 감소… 2월 말 잔액도 1월 말보다 낮을 것으로 예상

업계에서는 사상 처음 3개월 연속 감소도 예측 중… 반면 정기예금은 증가하는 추세… 한은 금통위 기준금리 인상에 따른 예·적금 금리 인상 영향

인터넷은행, 작년 중저신용자대출 목표치 '미달'

연합인포맥스

인터넷전문은행들, 금융당국에 제출한 목표치 달성을 실패… 작년말 기준 카뱅 17%, 케뱅 16.6%, 토스 23.9% 기록

다만 올해에도 중저신용자 대상 신용대출 공급 확대를 최우선 목표로 삼고 연말까지 집중할 것으로 알려져… 카뱅과 케뱅은 25%, 토스는 42% 늘리는 것이 목표

금융당국·은행, 28일 소상공인 '4차 만기연장·상환유예' 논의

매일경제

고승범 금융위원장, 주요 시중 은행장들과 28일에 만나 소상공인 대출 만기 연장과 상환유예 연장하는 방안 관련 협의 예정

3월 중순에 구체적인 방안 발표할 것… 은행권에서는 시기를 3개월 등으로 줄이거나 이자는 상환하도록 하는 방안이 필요하다는 주장 제기

쉽지 않은 분기배당…금융당국 “신중하라” 전달

e대한경제

금융지주사들, 올해 중간배당과 분기배당 추진하는 방안 검토 중… 이에 금융당국은 분기배당 등에 신중하라는 의견 전달 상태

금융당국, 코로나19 대출 재연장 결정된 만큼 총당금 적립 등 리스크 관리에 더 힘써야한다는 의견 때문… “주주환원정책에 뭐라 할 수 없지만, 적절해보이지 않는다” 언급

15년간 못했는데…펫보험 이번에는 인기 고나

뉴시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 정책공약집을 통해 반려동물 진료비 표준수가제 도입 및 펫보험 활성화 약속… 코로나19 이후 반려동물 입양 증가로 관련 시장 크게 확대 중

다만 가입 조건 까다롭고 보장이 만족스럽지 않아 어려움을 겪어… 업계 관계자 “표준수가제 도입되어도 동물보험 가입이 늘어날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언급

인수 물꼬 뒀다… JC파트너스, 리치앤코와 주식매매계약 맺었다

머니S

JC파트너스, GA 리치앤코와 경영권 인수를 전제로 한 SPA 계약 체결… 전체 거래 규모 총 1,850억원으로 회사 지분 60% 확보

JC파트너스는 현재 금융당국의 KDB생명 인수 관련 대주주적격성 심사 받는 중… 향후 투자 유치를 통해 영업이익률 개선 환경 구축 계획

NH투자증권, 정영채 사장 3연임 유력…내달 임추위 최종 확정

데일리안

NH투자증권, 차기 사장 선임을 위한 솟리스트 선정… 업계에서는 정영채 사장의 연임 유력한 것으로 예상 중

임추위는 옵티머스 사태 혐의 벗은 점, 실적으로 증명한 점을 들어 정 사장을 긍정적으로 평가… 현 시점에서 CEO 교체 또한 부담스럽다는 이유도 작용

원자재 가격 급등에 ETN 올해 매출액 10% 올라

아시아경제

원유 등 원자재 가격 급등하며 ETN에 투자자들 몰려… 25일 기준 5,950억원의 매출액 기록… 작년말 대비 10.2% 증가

특히 유가와 천연가스 가격이 오르면서 관련한 투자 수요 급증… 올해 등락률 또한 관련 ETN이 상위권 차지

Compliance Notice

본 조사분석자료는 제3자에게 사전 제공된 사실이 없습니다. 당사는 자료작성일 현재 본 조사분석자료에 언급된 종목의 지분을 1% 이상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본 자료를 작성한 애널리스트는 자료작성일 현재 해당 종목과 재산적 이해관계가 없습니다.

본 자료에 게재된 내용은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 없이 신의 성실하게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

본 자료는 투자자들의 투자판단에 참고가 되는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배포되는 자료입니다. 본 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당시 리서치센터의 추정치로서 오차가 발생할 수 있으며 정확성이나 완벽성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본 자료를 이용하시는 분은 본 자료와 관련한 투자의 최종 결정은 자신의 판단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어떠한 경우에도 본 자료는 투자 결과와 관련한 법적 책임소재의 증빙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본 조사분석자료는 당사 고객에 한하여 배포되는 자료로 당사의 허락 없이 복사, 대여, 배포 될 수 없습니다.